

양계산업의 40년 발자취

양계와 함께한 40년을 회상하며…

1962년 12월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가 창립되고 1973년 4월에는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한국초생추감별협회를 대한양계협회로 통합, 같은 해 6월에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가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국가금협회가 창립된 것은 48년 전, 그리고 대한양계협회가 설립허가를 받은 것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의 일이다.

월간양계는 한국가금협회의 창립이후 40년간 양계인들과 동고동락하며 양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매체임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양계협회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필자는 남다른 감회를 갖는다. 그 이유는 필자가 태어나던 해에 가금협회가 창립되었고, 산란계 농장에 처음 발을 디딘 다음 해에 양계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지금은 양계전문수의사가 되어 양계농장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내고, 미력하나마 월간양계에 매달 글을 실어 농장들에게 작은 정보라도 전해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월간양계 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 필자가 어린 시절에 지냈던 과거 양계장의 모습을 떠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올려 보기도 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현재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과 견주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어린 시절에 본 37년 전의 양계 현장의 모습

1) 산란계 농장

지금부터 37년 전인 1972년 필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만남의 광장(동서울) 뒤편 작은 양계장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곳은 외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산란계 농장이었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농장에서 저녁이면 호롱불을 준비하여 점등을 하였던 기억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그 당시의 기억을 거슬러 현재 농장을 상대로 일하는 입장에서의 농장 상황을 견주어 생각하면, 왜 외가댁 농장에 온 가족이 왔어야 했는지는 필자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리라 본다.

아직도 눈에 선한 당시 외할머니 양계장과 그곳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약 40년의 세월 간에 현재 필자가 질병예방 컨설

팅을 하는 농장들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실감한다. 외할머니의 산란계 농장은 작은 개울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농장 옆으로는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다. 계사는 나무로 만든 작은 규모 2동이었고, 케이지는 A형 2단, 그리고 바닥은 맨땅이었다. 계분은 일일이 고밀개로 긁어 삽으로 리어카에 페 담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고, 노계를 도태하고 나면 케이지를 분리하여 개울에 담가 놓고 브러쉬로 일일이 문질러서 세척을 하고 햇볕에 잘 건조시켜 다시 계사에 옮겨 조립하여 사용하였다. 계란은 일일이 손으로 수거하여 집란실에 쌓아 놓고 하나하나 여러 개의 수평저울에 올려 중량을 체크하였는데 계란 하나를 여러 차례 중량체크를 하는 불편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녁마다 호롱에 기름을 채워 계사에 일일이 걸어주고, 아침이면 다시 하나씩 걷어 기름에 그을린 유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마른 천으로 닦아 다음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했다. 육성 중에 디비킹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온 농장식구들이 매달려 농장 노동력을 총동원하여야만 했다. 봄과 여름에는 아카시아 잎을 손

으로 훑어 사료 푸대에 가득 채워 와서 사료에 섞어 닭에게 준 기억도 생생하다. 비가 올 양이면 변변한 계분장이 없어 농장주변에 널어놓은 계분이 젖어 내려가기도 하고, 여름엔 왜 그렇게 파리도 많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농장에 온통 파리로 가득찬 것 같았다. 당시엔 농장에 대한 시양지도를 포함한 정보 전달은 대부분 사료회사, 약품회사, 그리고 사료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몫이었다. 필자가 수의사가 되게 된 것도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농장에 자주 방문하셨던 사료대리점 사장님(수의사)의 권유 덕분이었다.

2) 육계농장

하남시에 이사 온 이듬해엔 부친께서 육계농장을 시작하셨다. 물론 외할머니 농장의 일을 보시면서 시작하신 육계농장이었다. 당시 상황을 접해보지 않은 독자들께서는 믿기지 않겠지만 최초 사육수수는 500수.... 입추 초기에는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삿갓육추기를 덮어 난방을 실시하고, 사료는 약을 물에 섞어 버무려 일일이 사료 푸대 위에 뿌려주고, 밤에는 야전침대를 놓고 병아리와

함께 잠을 주무시곤 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닭을 주로 기름에 통째로 튀기는 방법(통닭)으로 먹거나, 백숙의 형태로 먹었기 때문에 닭을 지금보다는 크게 사육하였다. 지금 기억으로는 약 1.8~2kg까지 사육을 했었던 것 같다(물론 삼계탕용이나 그보다 조금 큰 체중을 찾는 경우도 있었음). 닭을 크게 사육할 경우의 사육기간은 약 65일,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당시의 사육일령은 지금보다 훨씬



길었었다. 닭을 출하할 때면 천호동 등에서 90cc나 120cc 오토바이를 타고 온 상인들이 닭을싣고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해가 거듭되면서 사육수수를 늘려 가는데 땅을 임대해서 대나무를 끊어 휘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위에 비닐과 짚을 엮어서 만든 공석(보온 및 차광 목적)을 번갈아 덮고 나면 계사가 완성된다. 가운데 나무기둥을 세우고, 방충망을 둘러놓고 벗장을 촘촘히 썰어 펴 깔짚으로 사용하였다. 여름태풍과 겨울에 폭설이 오면 계사가 파손되거나 주저앉는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계사의 형태였다. 환기는 계사 양쪽의 비닐을 아침저녁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아주 더운 여름에는 선풍기나 햅을 계사 중간 중간에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시켜주거나 닭에게 직접 송풍을 해주는 형태였다. 겨울에는 난방의 어려움 때문에 눈을 뜨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환기불량을 경험하고, 아침에 계사문을 열려면 얼어서 문이 얼리지 않을 정도였다. 닭을 출하하고 나면 깔짚을 걷어내고, 오염된 바닥을 꼼꼼하게 긁어내어 깨끗하게 하고, 새 흙을 리어카에 실어 와서 얇게 펴서 일일이 다지고(경우에 따라서는 롤을 이용해 다짐) 그 위에 소독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의 사양수준은 양계산업의 규모나 발전모습에 비해 부분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 양계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아쉬운 점

산란계든 육계든 현재의 사육규모와 사육기술은 앞서 기억해본 과거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왔다. 40년 전 불과 몇 천수에 불과했던 산란계 농장 및 육계농장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수십만 수에서 백만 수에 이르는 규

모의 농장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 국내 양계산업의 현실 속에서도 농장 규모면에서나 사양관리 면에서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왔다. 또 양계산업과 관련된 업체들도 팔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사료영양부분과 백신을 포함한 동물약품 부분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양계전문수의사들의 출현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계질병에 대한 수의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농장에 이루어지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몇몇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국내 양계 농가들이 좋은 성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질병이 농가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질병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역과 농장 간 전파를 가능케 하는 농장관련 차량, 사람, 가축의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만 양계산업의 발전에 가속력이 붙게 될 것이다. 또 양계농가의 질병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쓰이는 백신 등 동물약품의 대부분을 주로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는 국내 약품제조회사들의 백신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이고, 농가들의 무조건적인 수입약품 의존성, 그리고 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책임 등 복잡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제조회사들이 백신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머지 않아 좋은 제품들이 국내농가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대형화되는 양계농장을 위한 조언(질병예방 관리는 환경관리이다)

농장이 대형화 되면서 첨단 장비와 시설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 시설들이 없으면 농장을 대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다양해지는 질병의 양상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많은 부분이 환경 불량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에 비해 시설이 따라가지 못했거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잘 운영하지 못했거나, 또 그 시설들을 너무 믿은 나머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경험했거나, 단순히 규모가 크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이유, 예를 들면 육계농장들의 깔짚 재사용과 산란계 농장들의 경우에는 노계도태 후에 시설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 등과 같은 이유에서 계군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같으면 환경오염 문제로 결코 실행할 수 없지만, 케이지를 분리해서 개울물에 담가 청소를 하던 산란계농장의 과거의 모습과 닦을 출하하고 나면 깔짚을 걷어내고 객토 까지 실시하던 육계농가의 과거의 모습에 비하면 대형화된 국내 양계농가들의 이면에 환경 불량이라는 복병이 너무 커다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심히 안타깝기만 하다.

농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점들 가운데는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다. 농장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병들의 대부분도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산란계농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기생충(진드기)의 경우도 복잡한 케이지 구조가 가져온 고질적인 문제점들 중 하나

이다.

농장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는 농장이 진정 대형 농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실속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는 닭 사육단계 HACCP이 농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많은 농가들이 이미 지정을 획득하였다. HACCP 제도는 안전한 양계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농장의 소득도 증대되는 것을 당연히 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농장에 도입하여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의 환경개선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계군이 불량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절기에 접어들고 겨울과 또 한 번의 환절기를 다 마치게 될 내년 4월~5월까지는 환기불량 혹은 환기부족에 의한 계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한다.

맺음말

대한양계협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가금 협회가 창립된 것이 이제 반세기가 다 되어간다. 또 우리가 매월 접하던 월간양계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세기의 협회역사의 비중으로 보면 실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다. 양계산업의 중흥을 꿈꾸며 협회를 위해 그간 열정을 쏟았던 업계 선배님들과 월간양계의 명맥을 이어오는데 혼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는 바이다. **양계**